

월요논단



현 해 남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제주의 가성비와 가심비는?

요즘 들어 가성비라는 말을 자주한다. 가심비라는 말도 쓴다. 두 용어 모두 표준국어사전에 없다.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단이다. 제주를 대하는 소비자도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질 것이다.
가심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이다. 누구나 무엇을 살 때는 가심비를 따진다. 겨울에 입을 오리털 점퍼를 구입할 때도 가심비를 따진다. 식당에 갈 때도 가심비를 생각한다.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 금방 사람들이 몰린다. 맛있는 식당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게 된다.

가심비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식음료 전문점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 저가 커피의 선두주자인 백종원의 백다방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절반 가격으로 "싸다, 크다, 맛있다"로 소비자를 끌었다. 가성비가 높은 음식 중의 하나가 편의점 도시락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가성비 제품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가성비가 좋으면 브랜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마트는 몇 년 전에 '노브랜드' 제품을 선보였다. 상품 본질, 기능만 남기고 브랜드 이름까지 없앴다. 가성비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가성비의 강점은 다이소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들지만 다이소에는 수두룩하다. 전체 상품의 50%가 1000원짜리라는 얘기도 있다. 그

러니 근처 조그만 점포는 가성비 강패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여행갈 때도 가성비를 계산한다. 예전에는 같은 값이면 제주여행을 택했다. 제주의 볼거리와 느낌의 가성비를 견줄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은 동남아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10년 전에는 해외여행자가 1000만 명이 조금 넘었다. 지금은 3000만 명이 가까이 된다. 제주보다 해외여행의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할 때도 가성비에 따라 선택한다.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비스를 탄다. 제주 버스는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가성비를 이기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가심비는 가성비보다 더 소비자의 선택권을 좌지우지 한다. 필자는 가심비 때문에 택시 대신에 비스를 탄다. 택시를 타면 기사가 무뎠다고 집적 취급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의 가성비와 가심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제주의 음식점들도 가성비를 잃어가고 있다. 제주 음식의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는 여행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올해 제주갈 곳은 과일 소비자의 가심비를 건드렸다. 품질 낮은 극조생 감이 유통되면서 소비자를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1kg에 몇 백원에 불과하고 아무리 가성비가 높아도 소비자는 외면할 것이다. 한번 실망시킨 소비자의 가심비를 되찾아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싼 게 꿀떡이고 경쟁력이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세계 1위 부자가 된 비결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도 소비자 입장에서 제주의 가성비와 가심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사설

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기울여야

제주경제가 암울합니다. 제주의 근간산업인 1차산업을 비롯한 제주경제가 녹록지 않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도민들이 올해 최대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JI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지역현안 여론조사 결과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28.2%)로 나타났다. 그 다음 제2공항 갈등 해소(25.4%), 쓰레기·하수 등 생활환경분야(20.1%)와 난개발방지(19.0%) 순이었습니다.
제주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해 경제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 제주지역 경제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비슷할 것 43.2%, 더 나빠질 것 37.9%, 나아질 것 15.6%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생생산업인 감귤이 난리났습니다. 자칫 생산비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제주경제의 중추산업인 건설경기도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원외통 도정이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 지사는 본보와의 신년대담에서 당면 최대 과제로 민생경제 활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제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만큼 새해에는 재정 투입 등 지역경제에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열린마당

새롭게 맞이한 경자년, 청렴은 계속된다



이 현 선
서귀포시 도시과

2020년 하얀쥐의 해인 경자년이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새해다짐을 하는 시기다. 새해 첫 출근길에는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올 한해 어떻게 보낼지 희망찬 모습이다.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즐거운 마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들뜬 마음을 다잡으며 기본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는 '청렴'이다.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치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서귀포시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기초자치단체분야 종합청렴도 1등

급을 달성했다. 이는 한명의 노력이나 아닌 공직자 모두가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이 결과는 나에게 커다란 자부심이 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해 달성한 값진 결과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올해 시무식을 개최하며 모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또 다시 '청렴결의문' 선서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제는 기본이면서 자부심이 된 청렴한 공직문화화를 위해 모두가 기꺼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자리에 돌아와 올해의 업무를 재개하며 청렴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해 본다.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한다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올 한해도 시민중심의 청렴행정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의 마음이 퇴색되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청렴을 실천하기로 새해 다짐을 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재정집행률 역대 최고 달성

17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
○...지난해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데 총력전을 벌였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
지난해 재정집행률과 집행률은 전국평균 집행률 86.9%를 4%p 상회한 90.9%로 17개 지자체 중 최고 집행실적이며, 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최고의 성과.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도 연초부터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모바일로 대형폐기물 배출

○...제주시가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해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을 개선해 눈길.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또는 PC로만 가능했는데 6월부터는 최첨단 기술발전에 맞춘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

제주시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에게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서귀산과, 특성화고의 희망"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3일 열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졸업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응원.
이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사건의 아픔을 딛고 군 특성화고 지정·학교협동조합 설립 등의 성과를 만든 학교에 격려와 감사를 전달.
이 교육감은 이날 축사에서 "선생님과 부모님, 시민들께서 학교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서귀산과고의 결실이 특성화고 전체의 희망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용암수 논란 효율적 보전·이용 모색 기회로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를 둘러싼 제주도와 오리온측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 공급 중단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물 분쟁은 오리온이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 의사를 밝혔다"며 강행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리온측이 국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어겼다고 반박하면서 진상규명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로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 달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하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지금처럼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물 공급 중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리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국내 시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

와 관련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용암해수(염지하수) 공급 중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란은 제주도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용암수의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 개념의 원칙을 지키면서 용암수를 체계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오리온으로서도 사업계획서 등 투명하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차원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용암수도 공수 개념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과 논란은 소모적 논쟁만 부를 뿐입니다. 용암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효율적인 보전·개발·이용을 위한 건설적인 해법을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고

현상준(서귀포시청 지점장)
어머니 여산송씨 손자(향년 76세)
께서 서기 2020년 1월 5일 오전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1월 6일(월)
▶장 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본관) 2층 3분향실
▶발인일시: 2020년 1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동흥동 가족묘지(선영)

- 배우자 현영배
아들 현상준
현상의
며느리 오승미
진선혜

* 연락처 : 현상준 010-5756-8711
현상의 010-5180-8992

감사의 말씀

강만생(前 한라일보 대표이사) · 강만순(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장) 어머니 송훈안씨 추생(향년 9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들 강만생 며느리 김순정
만순 홍보옥
경원 박윤자
사위 조병길
딸 강경림 김유태

2020년 1월 6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정(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 아들 임태근 며느리 김선희
딸 임순일
정순 사위 강만호
춘자 김한경

2020년 1월 6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영자(향년 6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 딸 남현이
현지
사위 강재윤
김은석

2020년 1월 6일

자본금의 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 감응한 서면결의에서 자본금의 액금600,000,000원을 금5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구주 100주를 신주 85주로 병합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주식회사 시티산업개발
제주시 사평2길 21, 가동 (오리이동)
대표이사 김 경 민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 감응한 서면결의에서 자본금의 액금600,000,000원을 금5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구주 100주를 신주 85주로 병합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주식회사 시티산업개발
제주시 사평2길 21, 가동 (오리이동)
대표이사 김 경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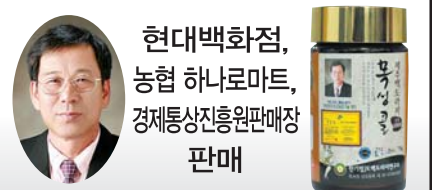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